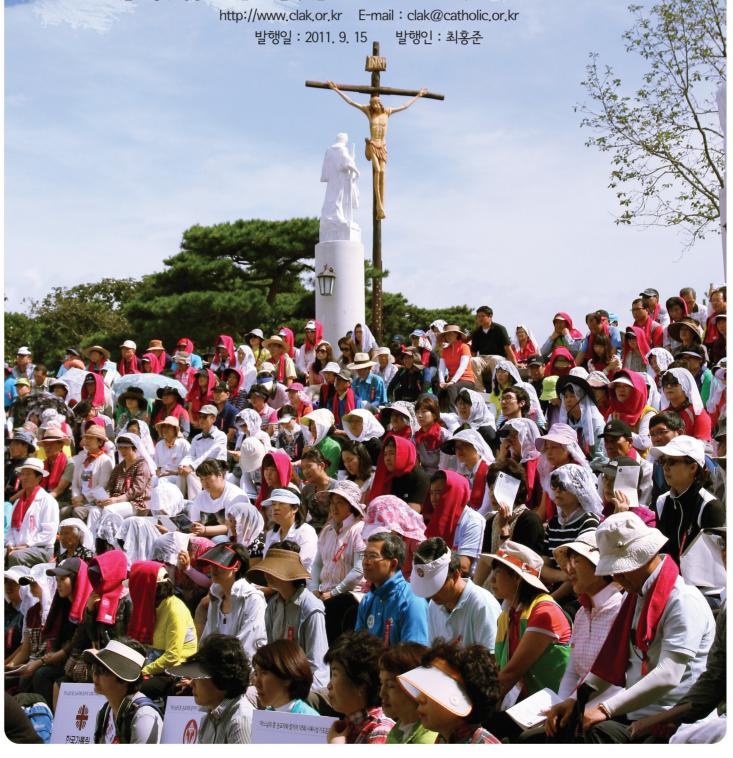




(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可引力以企人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 시성 기도운동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화보	6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10 11 13 13
한국평협 회원 단체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운동)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16 17
평협회장 단상 시복 시성 기도 운동과 평협 '적극적인 원의의 표출'	18
✓ 언론인 칼럼│ 신부님의 강론	20
교황님 말씀 젋은 약혼자들과의 만남	21







알림

● 4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오는 11월 18일(금)~11월 19일(토) 부산교구 은혜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시복시성 청원 기도운동 전국에 확산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도보성지순례 실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9월 4일 충남 솔뫼 성지에서 신리성지까지의 도보성지순례로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평협 주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도보성지순례는 솔뫼 성지에서 합덕성당과 무명순교자 묘역을 거쳐 신리성지에 이르는 총 11km의 여정으로 전국 각 교구 평협과 전국 단위의 교회운동*단체 회원 등 약 3천여 명이 참가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 124위와 땀의 순교자이며 우리 나라의 두 번째 사제인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며 도보순례에 임했다.

솔뫼 성지 아레나에서 참가자들과 함께한 순교자 현양미사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강론을 통해 "교회는 순례하는 교

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례하는 백성"이라며 "오늘 참가한 모든 분들이 잠시 세상을 잊고 조용히 자신을 돌 아보며 순례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기 바란다"고, 말하며 순례의 의미를 되새겼다.

미사 중 최홍준 회장의 선창으로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매일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다섯 단의 '묵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다짐했다.

신리성지에 도착한 후 파견전례 가운데 대전교구장 유 주교는 "한국평협에서 시복시성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늘의 은총을 가슴 에 새기고 이 기도운동이 전국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하며 한국평협이 벌이는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모든 신자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청했다. 다짐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다짐문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 시성 기도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순교정신 이어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한국평협은 '하느님의 종'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그리고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청원에 한국교회의 열망이 충분히 표현되기를 바라고, 이분들이 하루빨리 제단에 오를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해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성인으로 선포된 103위 순교자들의 시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선배 신자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의 뜨거운 노력과 봉헌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자신부터 복음화되어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신앙 쇄신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우고 가꾼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아버 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친교를 이루며,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피를 흘리지는 못함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특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숨 결을 마시며 십자가를 안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의 시복 시성을 위한 이 기도운동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하며 청합니다.

- 1. 우리는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신 '하느님의 종'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날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하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 ◎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 2. 우리는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의 전구를 통 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3. 우리는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하없는 사랑에 우리의 염원을 의탁하며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씩 바 치겠습니다.
- ◎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워크숍 실시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지난 8월 19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상지피정의집에서 한국그 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 심상태 몬시뇰과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는 신학 훈련과정의 하나로 '기초신학'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 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심상태 몬시뇰이 제공한 기초신학 강의록을 주제별로 나눠 각 연구위원들이 요약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열띤 토론과 나눔으로 참가자들 모두 시종 설레 는 모습이었으며, 각자의 전공분야가 아닌 신학이라는 새로운 주제 를 공부하게 되어 다소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워크숍 중에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신 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대해 나누고, 내년 제19대 총선 이후 적극적으로 신자 정치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의 등 교회 각 기관에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교회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활동'을 연구 주제로 하여 작년 아시 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현재 각 소속별 사도직 활동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 로 아시아교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모을 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서 시복 기도운동 시작 2012년 아시아 평신도대회 후속 전국대회 개최키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9일 원 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하느님의 종' 한국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운 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 미사를 최양업 신부 묘소 앞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 주례로 봉헌했다.

이날 배론성지 주임 여진천 신부의 '최양업 신부의 삶'에 대한 강의에 이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주교구 사목국 장이며 원주평협 담당사제인 김민규 신부가 함께한 가운데 각 교구에서 아시아 평신도 대회 후속으로 교구 평신도대 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어 2012년 평신도대회에 대한 세

부내용을 확정해서 올 주교회의 가을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 동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9월 4일에 대전교구 여사울 성지에서 합덕, 신리를 거쳐 솔뫼까지 진행되는 순교 자 현양 도보 순례에 한국평협이 함께 참여해 기도운동의 시발점으로 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많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또한 한국평협 인명록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고 각 교구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상임위원회 첫날 개막미사를 집전한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아시아 어느 곳보다 한국 평산도의 역할이 자랑스 럽고 발전적임을 격려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서 평신도 사제직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평신도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스스로 알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8일 오후 이곳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 함께했다. "아시아 평신도대회와 한국 평신 도 사도직운동"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오용석 소장은 '2010 아시아 평신도 대회의 소명과 실천' 발제에 서 지난해 아시아 대회에서 제기된 아시아 교회의 소명과 그 안에서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해야 할 실천적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 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요청했다. 오 교수는 이어 「하국평협 40주년 백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진행사항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는 계속해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홍준 한국평협 회장이 '한국교회 평신도운동의 전망과 과 제=지난 세미나들의 주제, 내용 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주교회의가 평협의 명칭 문제와 관련해 오랜 동안 관심 을 가져왔고, 평협 또한 여러 차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면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고치는 문제를 논의해 온 사실을 발 표했으며,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위원회 위원이며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성심수녀회 최혜영 수녀는 '아시아 교회 안에서의 성심 수녀회'라는 발제를 통해 성심수녀회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가난한 이들과 의 연대와 다문화 다종교와의 대화, 토착화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省上海山家 金里水里 多十十十 12591

至性行为治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mark>서울</mark>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평협 회원단체들 기도운동에 적극 함께하기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8월 22일 오후 5시 평협 하상방에서 회원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서울 회원 단체장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에 대한 소개를 나누고 하상방과 우편연락 사무소 설치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홍준 평협회장은 "평협이 103위 성인의 시성 추진을 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지금 한국교회가 125위의 시복시성에 대해 모든 운동단체가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9월 18일 서울평협에서 주최하는 도보성지순례에 대한 배경과 일정을 나누고 모든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평협 회장단과 고문단의 만남

서울평협 회장단은 9월 1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 평협 하



상방에서 이관진, 류덕희, 여규태 전 회장 등 고문단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전개하고 있는 평협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나눴다. 특히 평협 사무실의 리모델링 후 첫 만남인 이번 모임에서 단체들을 위해 설치한 하상방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평협에서 펼치고 있는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기 개설



서울평협은 지난 8월 29일 2011년도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기 첫 강의를 시작했다. 지난 1학기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첫 강의에서는 조규만 주교의 '주교들의 사목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강의가 있었다.

종강 미사까지 모두 15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이번 공의회 과정은 유수일 주교(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정의철 신부(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 망」, 사제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 김영국 신부(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김준철 신부(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 김영춘 신부(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 박준양 신부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 박정우 신부(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최홍준 회장(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최혜영 수녀(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노길명 교수(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종교간 대화), 조광 교수(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한국교회)가 강의한다.

수강생들은 지난 1학기를 마치고 이번 2학기 과정을 모두 마치면 전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mark>대전</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독일 피아노 연주의 거장 루드거 막자인 초청 피아노 연주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사제 임기선 신부)는 7월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동안 본당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본당회장단을 비롯한 사목위원들의 수고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자 교구장 유흥식 주교와총대리 김종수 주교, 600여 명의 교구 내 사제, 수도자, 본당사목위원들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피아노의 거장 '루드거 막자인 피아노 연주회'를 노은동성당에서 개최했다



유 주교는 축하 인사말에서 "교회에서는 오늘이 성녀 마르 타 축일이며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 았고 지금은 천국에서 편안하게 계실 것이다."라며 "여러분 도 마르타 성녀처럼 교회를 위해 노력하셨고 이제 편안하게 피아노 선율에 맞추어 마치 천국을 산보하듯이 소중한 시간 이 되길 바란다. 더위와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서 덕을 쌓아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밑거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홍거 회장은 "본당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본당회장단을 비롯한 사목위원들의 수고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준비했다."며 "여러분 의 신앙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고 했다.

9월 4일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 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위한 사도직단체장회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4일(목) 오후 7시 가톨릭문화회관 3층 진리관에서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9월 4일 도보성지순례를 위한 운동·사도직단체, 직장·직종동호회 단체장을 모시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김홍거 회장은 인사말에서 "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9월 4일 도보성지 순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이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순교하신 선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모두 힘을 모아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하여마음을 모으자." 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도울 수 있는 것은 힘껏 돕겠다며 먼저 본당신부들의 도움으로 많은 인원이 도보성지순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행사에 차질 없도록 대전 교구 평협에서 애써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눴다.



<mark>수원</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도보성지순례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변영철, 영성지도 문희 종 신부) 상임위원과 임원들은 하느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이 하루빨리 허락되기를 간청하





며, 또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은총을 깨닫고 그 분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하여 8월 13일(토) 도보 성지순례를 가졌다.

이 성지순례는 지난 '2011년 하반기 교구장님과의 만남 및 총회장단 연수'에서 우리 수원교구 6개 대리구 195개 본당 총회장이 함께 '하느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운동을 결의하면서 다짐했던 행동실천 사항 중 도보 성지순례를 일 년에 한 번 이상을 할 것을 실천하기위해서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 오전 9시에 교구청 마당에 모인 평협임원 10명은 손골성지에 도착 기도와 묵상,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로 도보성지순례를 시작했다. 북수원성지와 수원화성의 곳곳에 스며있는 성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면서 평협임원들은 선조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시복시성을 위한 밑 걸음이 되기를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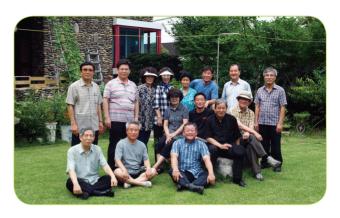


<mark>원주</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춘천·원주교구 평협임원 연석모임

지난 8원 16일 원주 구곡성당 후리사공소가 있는 용수골에서 춘천교구 평협(회장 김춘배프란치스코)과 원주교구 평협(회장 이병두 에드몬드) 임원 친선모임을 겸한 합동 연석회의가 있었다.

이 모임은 인근의 교구의 평협 임원들의 친목 및 향후 시복 시성 기도운동 등 양 교구 평협의 협조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연초부터 계획된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양 교구는 풍수원 성체현양대회 및 교구 사제 친목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평협 임원들 사이에는 교류가적음을 안타깝게 여긴 양 교구 회장들이 뜻을 모아 마련하게 됐다.

금년에는 원주에서 개최했으며, 춘천교구에서는 김춘배 회장 외 5명이, 원주에서는 이병두 회장 외 9명의 임원이 참 가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고, 원주에서 8원 27일 개최하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운동" 연수회에도 춘천교구에서 참관하기로 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임원 하계연수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병두, 담당사제 김민 규 신부)임원 하계 연수회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구룡사 계곡에서 있었다.

이번 연수회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 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준비하는 임원들이 먼저 기도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 적과 금년 전반기동안 많은 행사를 치룬 임원들 격려하기 위 한 자리였다.

김민규 사목국장 신부는 '봉사자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이라는 소공동체의 중요성과 봉사자들의 가정에서의 자세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병두 회장은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중요성과 임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친교의 시간을 통해 전반기동안 봉사에 감사하고 남은 금년 도 멋진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날 모임은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평협 임원들이 적극 참여 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하느님의 종 한국순교자 124위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운동 연수회

원주교구 평협은 8원 27일 교구 가톨릭센타 마리아홀에서 교구장 인준 단체장과 교구 본당 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느님 의 종 한국순교자 124위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운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한국평협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하느님의 종 한국순교자 124위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 도운동이 원주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체장들과 본당 회장단에서 기도운동의 참 뜻과 의미 를 알아야 한다는 교구장 김지석 주교의 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연수회에는 본당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몇몇 본당을 제 외하고 많은 본당과 단체에서 참석했다. 평협회장의 인사말 씀에 이어 김민규 사목국장 신부의 "시복시성기도운동 전개 과정과 순교영성의 조명"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가 있 었고, 중식 후 "시복시성의 과정과 평신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 주교회의 시복시성 청원위원이시며 대화본당 주임신부인 배달하 신부의 강의가 있었다.

이어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보충설명과 질의응답 후에 김 지석 주교의 파견미사로 연수회가 종료됐다. 비록 몇 시간 안되는 짧은 연수였지만 본당 회장단과 단체장들은 시복시 성 기도운동의 중요성과 소명을 인식하고 본당과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느님의 종 한국순교자 124위와 최 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운동 이 성공적으로 끝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mark>부산</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산평협 성지순례겸 I박 피정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해권, 담당 손삼석 주교)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북 제천 배론 성지를 순례하고 1박 피정을 다녀왔다. 피정 특강에서 부산교구 총대리이기도 한 손 주교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출산율 저조로 인해 교회에 어린이와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목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자."고 했다.

부산평협 교육분과 주관으로 실시된 복음 묵상과 나누기 시간에는 '성경말씀사탕'을 한 구절씩 선택해 각자가 묵상하 고 성경말씀을 무언극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시간 을 이어갔다.

피정 2일째인 8월 14일에는 배론성지 성전에서 연중 제20주일 미사를 함께 봉헌했다. 이날 강론에서 손 주교는 "오늘 8월 14은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사제의 천상탄일이며 우리는 콜베 사제의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참 사랑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와 이웃 안에서 실천에 옮기자"고 말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 이지만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성경퀴즈, 미사 등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마쳤다.



부산교구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27일(토) 오후 1시 30 분부터 수영장대골(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에서 출발하여 오륜동 순교자묘지에 이르기까지 15km를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의 시복시성을 지향하며 도보순례를 실시했다. 이 순례는 지난 2008년 8월 30일에 시작하여 서른일곱 번째로 교구 총대리 손삼석 요셉 주교 및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220 여명이 함께했으며 순례 후 파견미사에서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손 요셉주교는 강론에서 "순교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 이 뤄질 수도 없지만 먼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피를 흘리며 순교 를 원하지 않으나 순교자의 후손답게 순교선열들의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증거 하는 삶을 살아내자."라고 했다. 미사 후 가진 기념식에서 그 동안 꾸준하게 참석한 3년 개 근자(가야성당 박옥순 데레사 외 6명)를 비롯하여 2년, 1년 개근자에게 시상과 함께 격려했다.

부산평협이 성가정 운동과 함께 실시해온 이 보도순례에 송도성당 김경수 토마스 형제 가족은 전 가족이 2년간 개근을 하여 성가정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부산교구의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는 주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신부의 시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제3기 주일학교 아버지아카데미 개최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교구청 5층 대강당에서 「제3기 주일학교 아버지아카데미」를 운영했다.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금년 6월에 2기를 수료했고 이번 이 3기째이다. 횟수가 거듭 될수록 참가자가 늘어 3기에는 30명이 수료를 했다.

시작전례에서 부산평협 김해권 회장은 "지금까지지 신앙 교육은 사목자나 수도자에게 맡겨두고 지켜만 보아왔던 수 동적 자세였다면 이제 주일학교 아버지들은 교회에서나 가 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교육의 리더로서의 마음과 자세로 임하자."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부산평협이 주관하여 계획하고 실천했지만 향후 계획은 교구적 차원의 신앙교육활동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mark>마산</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마산교구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연석회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사제 이형 수 몬시뇰)는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본당회장 · 교구단체장 정기연석회의를 8월 26일(금) 마산 M호텔에서 개최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총대리몬시뇰 그리고 82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해 본당과 교구단체의 현황과 평신도운동 을 점검하고 토의하는 연석회의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안명옥 주교는 "교구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평신도사 도직운동이 활성화되고 교구단체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 며, 많은 회원 수나 외형적 조직의 증가보다는 진실한 사명 감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강신근 회장은 평신도의 사명과 참여를 강조하며 후반기의 중요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후반기 중요사업 으로는 9월 순교영성 심포지엄, 10월 책 읽는 그리스도인 독 후감 쓰기 공모전, 11월 평신도주일과 진해왜성성역화를 위 한 산상미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날 진행은 지구별 평신도운동의 보고와 교구단체별 보고 그리고 자유토론과 교구장의 강평에 이어 만찬연을 통한 친 교와 소통의 행사로 마무리했다.

<mark>광주</mark>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5대 담당사제 우원주(베드로) 신부 부임

지난 7월 28일 광주대교구 정기 인 사발령에 따라 우원주(베드로) 신부 가 교구 사목국장으로 부임하고 광주 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여성 위원회의 담당사제를 맡게 됐다. 우원 주 신부는 1991년 1월 22일 사제서품 을 받은 후 염주동, 연동성당 보좌신



부를 거쳐 로마유학을 마치고 구례, 조곡동, 쌍암동, 하당성 당에서 주임신부를 역임했고 교구 홍보 비설실장, 청소년 사 목국장 등 다양한 사목활동을 했다.

신임 옥현진 보좌주교에 업무보고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 우원주 신부)는 8월 6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지난 7월 6일 주교서품을 받은 옥현진 시몬 보좌주교와 신임 담당사제 우원주 베드로 신부를 모시고 평협과 순교자현양회 및 여성위원회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8월 임원회의에서는 순교자현양미사(9월 24일), 2011 선교대회(10월 8일), '광주평협' 제14호편집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 방문

지난 8월 22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와 사제, 평신도, 수도자 등 50여명이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생태계와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격려하고 연 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광주평협과 여성위원회 임원 6명 이 함께 방문하여 제주교구 형제들과 연대하여 기도함으로





서 강정마을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줬다.



선교사례 수기공모

광주대교구 평협은 '2011 선교대회'의 일환으로 선교사례수기공모를 실시했다. 우리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개인이나단체의 선교사례를 9월 30일까지 모집하여, 우수사례는 10월 8일에 개최되는 선교대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교구평협의 선언

광주대교구 평협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입장을 지난 5월 8일(부활 제3주일)에 광주대교구 주보「빛고을」을 통해 발표했다. 교구평협에서는 그동안 광주대교구 내 나주 윤 율리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평신도의 입장표명을 절실히 통감해왔다. 제40차 정기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

와 의결을 거쳐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참 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본당 사목협의회장들이 선언문을 본당의 전 신자들에게 발표하도록 했으며, 특히 교구단위 제 단체에서는 교구장의 교령과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회원들은 제 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회원에서 축출하도록 요청했다. 선언문에 대한 전문은 다음 과 같다.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선언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주변 추종자들'이 교구장의 교도권에 의한 사목적 권고와 공지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순명치 않으며, 오히려 비방과 함께 사도로부터 이어온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광주대교구장께서는 2010년 7월 교 황청 신앙교리성을 방문하여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 들께서 발표한 교령과 공지문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은 동 일하며 전혀 변화가 없음 재차 확인하시고, 2011년 5월 1 일(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주변 추종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신앙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친교와 일치의 교회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2008.1.21)과 공지문(1998.1.1, 2001.5.5, 2005.5.5, 2011.5.1)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라는 교구의 입장(2007.11.19, 2009.2.24)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2.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그 관련 현 상들'을 "사적 계시" 혹은 "기적"이라 현혹하면서, 교황님 과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그 관련 현 상들'을 각종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본당과 각 단체에서는 신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4.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써 자행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가톨릭 신앙을 빙자한 허황된 맹신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은 반교회적인 신앙 일탈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정통가톨릭과 무관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교회를 떠난 사람들로서 더 이상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8일

광주동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서부지구 평신 도사도직협의회/광주북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 주광산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목포지구 평신도사도 직협의회/순천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여수지구 평신 도사도직협의회/나주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서남부 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신심운동단체협의회/사도직 단체협의회/직능별단체협의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저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 는 그리스도인들을 평신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사명은 오늘날 더욱 고귀하고 막중해 졌다.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고유한 사명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맡은 성직자들의 사명보다 더욱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업,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함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한다(사제직). 그들은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한다. 일반 교육과 특히 사회 홍보 매체를 통한 복음 선포는 평신도의 몫이다(예언자직). 그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고, 사회 정의와 덕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왕직).

- 가톨릭교회 교리서 중에서 -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

2011년 마리아폴리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대표 문원주 마리스, 김석인 알베르토)가 마련한 2011 여름 마리아폴리가 7월 20일~31일 3박 4일씩 3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온 남녀노소 3천여 명(1, 2, 3차 총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 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네'>를 주제 로 열린 이번 마리아폴리는 누구나 각자 위치에서 <하느님 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모험에 동참할 수 있음을 확 인하는 계기가 됐다.

1차 마리아폴리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미사를 주례했던 주 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Osvaldo Padilla) 대주교는 강 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삶에서의 <하느님의 뜻>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마리아폴리에 참석한 포콜라레운동 회원들과 이 운동의 친 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대답하였다(탈출기 24,3)'라는 구절이 나옵 니다. 오늘날 "한 목소리로" 답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데, 우리는 개성, 자기 표현, 자기 방식대로 하기, 다양성 등 을 부각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전망에서 행해진다면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일치는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 리는 예수님의 성체 안에서 모두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 리에게 '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하느님의 질 서 안에는 우리에 대한 '네'뿐 아니라 '아니오'도 존재합니다. 성 아오스딩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 가 존재하며 아마도 우리 역시 영신적인 의미에서 '가라지' 가 될 수 있으니, 어쩌면 이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한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 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잘 분별하고 열매 맺으며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기를 빕니다."

한편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3차 마리아폴리 3박 4일간 프로그램에 함께했고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도 1차 마리아 폴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포콜라레 정신이 자신의 사 제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버팀목이 된 것에 대해 참가자들에 게 감동을 주는 강론을 하셨고 주교의 권위보다도 함께 그리 스도 신자라는 더욱 강한 신뢰를 느끼게 해 주었다. 또한 한 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겸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마리 아폴리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 졌으며, 파견미사도 집전했다. 서울대교구 조규만 보좌주교 는 청소년 사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마리아폴리에 온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랑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서품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광주대교구 옥현진 보좌 주교도 참석하여 전체 마리아폴리에 총 6명의 주교님이 참 여했다.

묵상과 워크숍, 경험담 나눔과 축제, 매일미사 등으로 진행 된 이번 마리아폴리에서는 특히 지난해 9월 복자품에 오른 포콜라레운동의 여자 젊은이 키아라 루체 바다노의 삶이 소 개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키아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이후 만 18세의 나 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례적인 성덕의 모범을 남긴 바 있 다.

또 이번 마리아폴리에서는 올해 탄생20주년을 맞이한 공유 경제(Economy of Communion)도 소개돼 많은 관심을 모았 다. 공유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한 브라질의 사회 현실 앞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되,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나눔의 정 신과 <주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포콜라레운동의 창설자 끼 아라 루빅이 제안해서 시작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본 지 7월호, 8월호 참조) 지난 5월 브라질에서 열렸던 공유경제 총회에 다녀온 한국 참가자들의 경험담과 최근 KBS에서 방 영된 브라질 공유경제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유경제의 현실이 소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실현해나갈 방법 등 이 제시됐다.

1, 2, 3차 마리아폴리에서 처음 온 참가자들은 모두 750여 명으로 총인원 3천여 명의 약 25%였고 유아 및 청소년과 청 년 인원 합계 비율은 35.3%에 달했다. 또 참가자 대부분이 평 신도였지만 주교와 사제, 수도자, 신학생도 다수 참가해 다 양한 성소가 어우러진 마리아의 도시(마리아폴리, Mariapoli)의 특성이 돋보였다.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하계 전국꼰비벤자 개최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CASK: Community Animation Service of Korea)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 지 2박 3일 동안 경북 칠곡 한티피정의 집에서 서울, 수원, 원 주, 대전, 안동, 대구, 전주, 광주교구의 사제 16명, 수도자 1 명, 평신도 25명 등 42명이 참석해 정례 하계 전국 꼰비벤자 (convivenza)를 가졌다.

금번 전국 꼰비벤자에는 MBW의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영성'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위해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가?"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을 살기 위한 공 동체 영성'에 대해 함께 묵상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은, 사귐의 신비를 드러내는 하느님 백성 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체험 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중 2회의 전국 꼰비벤자 중에서도 특히 하계 꼰비벤자는 양성회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 시대의 영성' 교재와 관련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기 존의 교재(1987년에 나온 이탈리아 판을 근간으로 하여 필리 핀에서 편찬)를 새 번역(1997년 이탈리아)과 호주판(2002년 호주)을 참조로, 전국 팀(NT: National Team)이 작금의 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편한 개정판(2011년 한국)에 대한 체 험과 검정의 자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체험들은 각 교구의 본당에서 주제를 주기 위한 내 용의 이해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중심으로 각 주제 간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으며, 각 단계 마지막에 가 진 헌신미사, 일치미사, 파견미사는 공동체 영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다. 함께 나눈다는 꼰비벤자의 의미에 걸맞게 아침기도부터 저녁 미사까지 교육과 식사 및 전례를 정해진 봉사자들이 저마다 수고해 주었기에 모든 일 정이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덕분에 과거 여느 때보다 활발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의 파견미사를 집전한 조정오 전국 회장(전북 고 창성당 주임신부)도 "개인성화와 공동체 영성을 바탕으로 한 국 교회의 쇄신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로 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내년 동계 전국꼰비벤자는 1월 16일~19일 마산교구의 가톨 릭교육관에서, 하계는 8월 7일~9일에 대구교구의 칠곡 한티 피정의 집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동정

김홍거 세례자 요한 대전평협 회장은 9월 24일 대전시내 탄방동 성당에서 차남 규식 하상 바오로 군의 혼인예식을 통해 송재일. 오화진 비비안나 씨의 장녀 지예 요안나 양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대전교구 김종수 총대리 주교 주례로 봉헌된 이날 혼인 미사 는 윤주병, 김용남, 임기선 신부와 김회장의 아우 사제인 김홍식 신부 등이 함께 집전했다.



시복시성 기도운동과 평협 '적극적인 원의의 표출'

한국천주교 평협이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신부에 대한 시복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신자의 대부분인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발표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님은 담화에서 금년 5월 1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식에 참석차 로마에 간 기회에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예방했을 때 추기경은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청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시복 시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복 시성을 간절히 바라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원의의 표출이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순교자들의 순교 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평협의 이 같은 시복시성 운동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한국천주교 평협 20년사〉에 따르면 1971년 7월 27일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평협제4차 정기총회는 8개항을 결의했는데, 그 네 번째 항목이 "한국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순교 125주년을 맞는 복자 김대건 신부의 시성운동과 교회 창설기 -신유년-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을 일으켜 그 달성 시기를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이 되는 1984년에 두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평협 초대와 2대 회장을 역임한 류홍렬(柳洪烈 라우렌시오) 교수는 〈나의 학문편력〉이라는 매일경제신문(1981. 8. 11) 회고록에서 '한국가톨릭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가 1968년 7월 23일 대전에서 출범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해 10월 6일 추석날에는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102년 전에 순교한 병인 순교자 24위의 시복식이 드려졌고 우리는 1925년에 시복된 79위 복자와 더불어 103위의복자를 모시게 되니, 이날 나는 아침 7시, 8시의 혜화동성당미사 강론과 12시 반 방학동 묘지 옥외 미사 강론을 통해 이들을 성인품에 올리도록 시성운동을 일으키기를 주장했다.

이날 교황 바오로 6세는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시복강론을 통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의 훌륭한 신앙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칭찬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평신도회장 일을 4년 동안 맡아 보면서 기틀이 주어지는 대로 103위 복자의 시성을 주장하고 …1973년 12월호의 「경향잡지」에 '교회창설 200주년을 앞두고 할 일들'이라는 글을 실어 103위의 시성을 주장하고 75년 9월호의 「경향잡지」에 다시시복 50주년을 맞아 신자들의 할 일이라는 글을 실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홍렬 회장은 크리스찬 출판사가 1990년 3월에 펴낸 평신 도교육문고 제46권 <한국 103위 시성 경위>에서 103위 시성 이라는 놀랍고도 거룩한 사건도 "한국 천주교회가 한강 연한 의 서울, 광주군, 양평군 등에 숨어 살던 남인파 선비들의 자 발적인 교리 연구의 결과로 200년 전인 1784년에 세워졌음 과 마찬가지로 한국 천주교 평신도의 제창으로 이루어지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류회장은 이 책에서 한국평협 이 1971년 12월에 개최된 전국 주교회의에 시성운동을 제안 했는데 주교회의는 이를 연구과제로 삼아 보류시켰다고 적 고, 1973년 12월호 「경향잡지」에 ①시성운동을 일으킬 일 ②6 • 25 순교사료를 모을 일 ③신자 배가운동 200만명 달성 4세계 성제대회 서울 개최 등을 제창했다고 회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1975년 9월 5일에 열린 제8차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에서는 시성 • 시복운동을 전국적 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10월에는 이를 위한 자문위원을 뽑아 이를 추진하게 했다. 이에 1976년 4월에 열린 전국 주교 회의에서는 전국 주교의 연서(連書)로 우리 복자들의 시성청 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그 추진위원장 으로 수원교구장 김남수(안젤로) 주교를 선임하게 됐다."

시복시성운동과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2004년 10월에 펴낸 <한국천주교 회 총람 1995-2003년>에 따르면 1970년 10월 대전 목성동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열린 주교회의 총회 결과 제9항에서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 가능성: 1801년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 가능성을 연구한다. 한공렬 주교, 지학순 주교, 두봉 주교가 책임진다."고 했고, 류홍렬 회장이 지적한 1971년 12월 왜관 피정의 집에서 열린 주교회의 결과 제11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복 시성 촉진에 관하여: 이미 교회 내여러단체에서 복자 김대건 신부를 성인품에 올리고 신유년 교난 시에 순교한 초기 한국 순교자들을 시복시키자는 운동이전개된 것은 매우 기쁜 현상이다. 이 민간운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건의해 왔으나, 문제가그리 단순하지 않을뿐더러 사계(斯界)의 전문가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주교들과 관계자들이 깊이 연구한 후에 구체적 위원회 조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듬해 1972년 10월 메리놀 한국지부에서 열린 추계 정기 총회 결정사항 중 보고 청취 제5항에서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의 건의를 듣고: 복자 김대건 신부님의 시성 및 교회 창설기의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에 관해서는 우선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신심운동에 치중하고 주교단이나 평신도 단체들이 합심하여 전국적으로 이 신심운동을 전개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75년 2월 왜관 피정의 집에서 열린 춘계 주교회의 총회에서는 "79위 복자 시복 50주년 기념행사는 교구별로 하고 전국적인 행사는 주교 상임위원회 주관토록 했다."고 했으며, 1975년 11월 왜관 피정의 집에서 열린 추계 정기총회 결정사항 제4항은 "평신도사도직 전국 협의회 인준"이라는 제목 아래 "'평협'의 명칭을 원안대로 인준하였다. 평신도 주일헌금에 관하여는 종전대로 하되 적극적인 헌금을 하도록 권장키로 하였다."고 적은 다음 계속해서 "시성 운동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 삽입 건의에 관하여는 시성운동만이 아니고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하여서도 신자들의 일상 기도생 활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권장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1976년 주교회의 춘계 총회(4월 21일~23일, 서울 상지회 관) 결정사항 제8항은 "한국 복자 시성운동 촉진"이라는 제목 아래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교들의 연명으로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제출하는 동시, 시성 촉진 책임 주교로 김남수 주교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회의 1983년 추계 정기총회(11월 22일~25일, 서울 상지회관) 심의사항 제1항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맞이하여 1984년 5월 3~7일까지 교황 방한 시에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이 한국에서 거행되며, 한국 성인들에 대한 호칭도 주교단이 요청한 대로 '김대건 안드레아와 102위 동료 순교자들'로하도록 교황의 허락이 내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적고 있고, 11월 23일자 주교단 명의로 200주년 사목교서 '이 땅에 빛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한국평협과 한국평협을 이루고 있는 각 교구 평협 및 회원 단체들은 계속해서 초기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시성 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여기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준파비아노



신부님의 강론

"주일 아침, 성당에 가려고 준비를 하던 아내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천 원짜리 몇 장만 주머니에 넣고 지갑 자체를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만날 때에는 제일 먼저 챙기던 지갑을 성당 갈 때에는 왜 두고 가는 거야?' '지갑을 가지고 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고 봉헌성가할 때 너무나 괴롭더라고.' 아내의 이 대답에 남편이 걱정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예수님도 당신 기도 소리 듣고 괴로울까봐 응답 주머니를 하늘에 두고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 "

우리 본당 최선웅 신부님의 강론 한토막이다. 신부님의 강론은 언제나 재미있다. 우리네 생활 속에서 겪을 법한 재미있는 일들을 골라내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그리도 쉽게 돌이켜 보게 한다. 신자들은 쉽게 듣지만 그 말씀이 그리 쉽게 나왔을 리 없을 게다. 신부님들의 강론에 대한 정성과 고민에 대한 일화를 여러 차례 들었다. 술 좋아하시는 어떤 신부님은 금요일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주일 미사 강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또 다른 신부님은 강론을 준비하다보면 부담감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낀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들려주었다.

강론에서 효과적인 표현방법은 무엇일까? 라디오는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있어서는 강론과 비슷하다. 방송작가 박경 덕의 재치 있는 '큰소리'는 그럴듯하다. "라디오에서 가장 좋은 글쓰기 방법은 은유다. 역사상 은유의 대가는 예수와 석가다. 예수 님께서는 시장이나 산상에서 마이크는 물론 지붕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저런 사람들을 모아 높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 방법에 대해 고민 많이 하셨을 거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은유와 비유다."

강론이 어려운 것은 원고 때문만이 아니다. 초등부 주일미사에서 떠들어 대는 어린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신부님을 본적이 있다. 소리 높여 야단도 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열의는 감사하지만 옆에서 듣기 민망했다. 어린이를 집중시키는 기술은 따로 있다. 노련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저 뒤에 앉은 누구, 참 자세가 좋네, 자. 누가누가 똑바로 잘 앉았나 볼까?"라고 어린이들을 추켜 주면서 조용히 시킬 것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노하우를 신부님들께 전해드리면 어떨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강론이 있다. 요셉수도원 이수철 프란치스코 원장님의 강론이다. 요셉수도원은 태릉 불암산 자락, 배나무 과수원 안에 자리한 아름다운 수도원이다. 원장님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주일미사의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수도원 배밭 사이를 홀로 거닐며 그날의 강론을 구상합니다." 지난 6월에 원장님의 강론으로 역은 책 <사랑밖엔 길이 없었네>가 나왔다. 내용 중에 '가난한 겨울나무가 아름답다'라는 글귀가 나온다. 새봄 신록의 나무, 한여름 녹음의 나무, 늦 가을 단풍든 나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잎새를 다 떨구고 맨가지 사이로 하늘을 보여주는 겨울나무도 아름답다는 말이다. 자연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강론을 준비하는 그분만이 할만한 말씀이다. 그분 강론을 들을 때마다 새벽 3시 짙은 어둠속을 홀로 걸으며 묵상하는 그 수고를 함께 느끼곤 한다.

본당 신부님들은 강론을 준비할 사정이 좋지 않을게다. 홀로 깨어나 거닐 배밭도 산자락도 물론 없다. 그 많은 신자들의 이런 저런 사정과 크고 작은 본당일에 얽혀있으니 신경 쓸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강론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신부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신자들의 활동을 동영상에 담아 강론에 활용하시는 신부님들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신부님들도 생기셨다. 감사할 일이다. 신자들은 강론을 들으면서 말씀과 함께 신부님들의 그 수고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김승월 프란치스코 (서울평협 홍보위원, MBC 라디오본부 국장)



이탈리아 전국 성체 대회가 열린 이탈리아의 안코나 사목방문 베니딕토 16세의 연설 / 젊은 약혼자들과의 만남 2011년 9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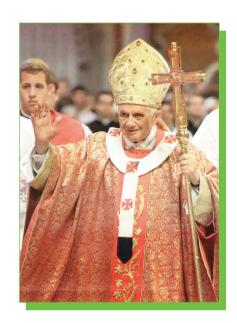
사랑하는 예비부부 여러분,

전국 성체대회의 절정인 오늘을 마감하면서 은총 가득한 이 대회의 유산을 젊은 여러분에게 맡기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에게 준 이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우리 미래의 삶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물음들은 오늘의 사회에서 큰 무게를 지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물음에 대해 몇 가지 방향만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는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축제에 쓰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도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베일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결단력있는 결정을 뒤로 미루게 하며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세대가 지닌 능력과 창의력의 힘이 갖는 부유함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 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명백한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 역시 축제에 쓸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 시대 에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충동을 받고 있으며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 머물고 맙니다. 공동체적 유대의 해체는 필수적인 가치를 허물 어버리는 상대주의로 귀결되고, 감각과 마음과 감정의 공유가 인생의 규범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선택들 마저 쉽게 깨어지고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변해버렸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구가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근본적인 삶의 선택 자 체가 희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성을 하찮게 여기고, 성을 생명의 나 눔, 사랑의 나눔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육체 예찬 역시 축제에 필요한 포도주 가 결핍된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 맞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안에 굳건히 남아 용기를 지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힘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항구하고 서로에게 충실하듯,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항구하고 충실한 만남,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



正生儿。 叶丛

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과 가까이 있으며, 여러분을 격려하고, 큰 신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인간, 가족과 인간관계, 정의 등 가정의 토대가 되는 참된 가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삶의 식탁으로부터 기쁨을 앗아가는 듯한 부족함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을 예수님께 불러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복음에 실린 마리아의 마지막 이 말씀, 마치 그분의 영적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축제의 기쁨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제의 포도주이십니다!

예비 신랑신부로서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시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만남의 경이로움을 열어주며, 누군가에 게 소중한 이로 존재하고 서로에게 '당신은 내게 중요합니 다' 라고 말할 수 있게하는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시기입니 다. 강렬하지만, 점진직이고, 진지하게 이 여정을 살아가십 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반영하는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이상도 따르기를 거부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 분 삶의 이 단계를 살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증거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거짓된 보호막인 둘만의 내밀 한 관계 안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 다.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이고 책 임감있는 현존의 누룩이 되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진실한 사 랑을 살기 위해서는 성숙의 여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마 십시오. 서로에게 이끌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데에 익숙해 지십시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희생과 용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먹고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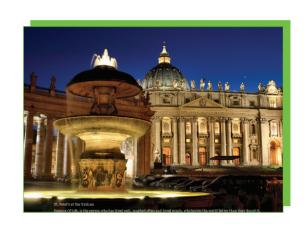
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결혼을 통하여 서로에게 생명을 주기 로 한 남자와 여자의 선택을 성화시키는, 영원하신 사랑의 징 표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약속한 이 시기를 믿음을 지니고 그러한 선물을 기다리는 기다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러 한 선물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존경하며, 결코 사그라 들지 않는 서로에 대한 관심의 길을 함께 할 때, 받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는 이러한 여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해가 지나도 의미있는 언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에 게 충실성을 지키는 자유로움에 익숙해지십시오. 그것은 서 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것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확 신을 가지고 사랑의 특성인 '영원'을 선택하는 데에 익숙해지 십시오. 혼인의 불가해성은 제약이기 이전에, 끊임없이 변하 는 인간적인 상황들을 초월하여, 언제나 원하고 요구되고 실 천되어야할 선물입니다. 동거가 미래를 위한 보증이라는 흔 한 사고방식에 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은 사랑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히려 때와 점진적인 애정 표현을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 인 사랑을 충실하고 행복하고 불가해한 것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께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사 랑의 충실성과 지속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향해 열 려 있도록 해주고 부모가 되게 해 줄 것입니다. 결혼 성사 안 에서 여러분의 결합이 공고해질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자녀들이 선한 삶 속에서 신뢰를 지니고 자라나 게 될 것입니다. 충실성과 불가해성과 생명의 전달은 모든 가 정의 근간이며, 진정한 공동선이자, 온 인류 사회를 위한 값 진 재산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러한 가치 위에 혼인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이를 증거하십시오! 노력과 전문성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양성을 도와주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 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여러분을 향해 지닌 관 심과 보살핌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



분이 먼저 교회의 보살핌을 찾아나서고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지금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사 랑의 경험은 내재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지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 정한 사랑은 영원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향한 여러 분의 이 시기가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둘이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발견하십시오! 마리아께서 는 우리 각자의 선익은 순응하는 마음으로 성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 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 안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물이 인생을 선하게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사랑의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가나의 기적은 희생제물인 동시에, 주님 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잔치상인 성체성 사의 '새로운 포도주'를 예고하는 것이며,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 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만남의 생생한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 미사전례에 전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성체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존 재의 의미와 삶의 새로운 방식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권고 '사랑의 성사' (Sacramentum caritatis) 72-73 참조>. 이렇게 할 때 부부가 되려는, 쉽 지않은 선택에 따르는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유일한 하나의 몸이 되는 이 '위대한 신비' 안 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페 5,31-32).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성 요셉과 거룩하신 마리아의 보호에 맡겨드립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동정 성모님의 초대를 따를 때 참된 축제의 향취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내어주시는 가장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전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이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순교자 124위>

분류	순교자명(출생지별)	순교자명(순교지별)
광주	이봉금	
대구	윤봉문	김윤덕, 김시우, 최봉환, 서석봉, 김희성, 구성열, 이시임, 고성대, 고성운, 김종한, 김화춘, 박경화, 김세박, 안군심, 이재행, 박사의, 김사건, 신석복, 박대식
대전	김시우, 최봉환, 김희성, 구성열, 이시임, 고성대, 고성운, 김종한, 김화춘, 박경화, 안군심, 이재행, 박사의, 김사건, 원시장, 이도기, 방프란치스코, 박취득, 정산필, 인언민, 이보현, 김광옥, 김정득, 황일광, 김진후, 김종륜, 홍낙민, 강완숙, 한신애, 홍필주, 이성례, 한덕운, 김강이, 최해성, 윤지충 최비르지타, 윤지헌, 권상연, 이일언, 이태권, 정태봉, 김대권, 김조이, 홍재영, 이조이, 오종례, 원시보, 배관겸, 김사집	원시장, 이도기, 방프란치스코, 박취득, 정산필, 인언민, 이보현, 이국승, 김광옥, 김정득, 황일광, 김진후, 김원중
마산	박대식, 구한선, 정찬문, 허인백	구한선, 정찬문, 김기량, 윤봉문
 부산	신석복, 이정식, 양재현, 이양등	이정식, 양재현, 이양등, 김종륜, 허인백
서울	김세박, 최인길, 지황, 최창현, 홍교만, 최필공, 최필제, 정복혜, 정인혁, 김현우, 문영인, 최인철, 김이우, 김종교, 현계흠,손경윤, 이경도, 김계완, 이순이, 이경언	주문모 신부, 윤유일, 최인길, 지 황, 조용삼, 최창현, 정약종, 홍교만, 최필공, 홍낙민, 최필제, 윤운혜, 정복혜, 정인혁, 정철상, 심아기, 강완숙, 강경복, 김현우, 문영인, 김연이, 이 현, 최인철, 한신애, 김이우, 김종교, 홍필주, 현계흠, 손경윤, 이경도, 김계완, 홍익만, 이성례 조숙, 권데레사, 송베네딕토, 송베드로, 이안나
수원	윤유일, 조용삼, 윤운혜, 심아기, 이 현, 홍익만, 조 숙, 권데레사, 최창주, 이중배, 원경도, 윤유오, 윤점혜, 정순매, 정광수, 권상문, 신태보, 최조이, 장토마스	최창주, 이중배, 원경도, 윤유오, 윤점혜, 정순매, 정광수, 한덕운, 권상문, 박프란치스코, 오마르가리타
 안동	김윤덕, 박상근	박상근
의정부	정약종, 정철상	
인천	이안나, 심조이	
원주		김강이, 최해성, 최비르지타
전주	한정흠, 김천애, 최여겸, 유항검, 유중철, 유문석, 유중성	윤지충, 권상연, 한정흠, 김천애, 최여겸, 유항검, 윤지헌, 유중철, 유문석, 이순이, 유중성, 이경언, 이일언, 신태보, 이태권, 정태봉, 김대권, 김조이, 심조이, 이봉금, 홍재영, 최조이, 이조이, 오종례
제주	김기량	
청주	이국승, 김원중, 송베네딕토, 송베드로, 박프란치스코, 오마르가리타, 오반지	원시보, 배관겸, 김사집, 오반지, 장토마스
춘천	홍인	홍인
중국	주문모 신부	
미상	서석봉, 강경복, 김연이	

<증거자 1위 > 최양업 신부 | 출생지 : 청양 다락골 | 선종 : 문경 또는 진천 배티 교우촌